



10 단계 : 타종교와의 대화

“성경과 타종교”

창 1:1 - 23

2011. 9. 21 (수), 9. 24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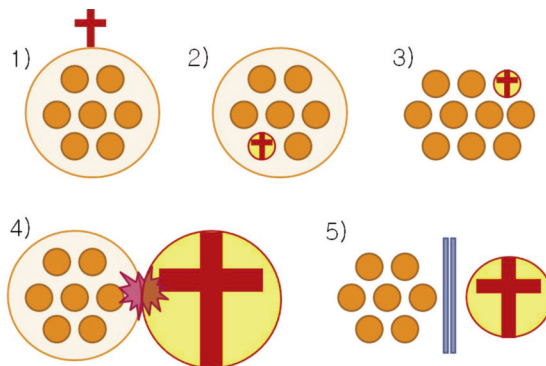
I. 타 종교를 바라보는 신학적인 틀

1. 하나님의 나라 관점

1)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

against, above, of, paradox, transformation

2)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와 Christen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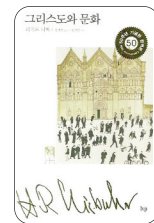
3) 성경과 타종교 : 성경 자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성경과 바벨론 신앙(창세기), 성경과 애굽 신앙(출애굽기)

성경과 바알 신앙(사사기), 성경과 그노시즘(요한 복음),

성경과 고대 종교들(불교, 유교, 조로아스트교..)

4) 타종교를 대하는 바른 자세는?



■ 그리스도와 문화



■ 자료
Theories of the
Universe: From
Babylonian myth to
Modern Science,
ed., Milton K.
Munitz, A Free
Press Paperback.

II. 바벨론 신앙과 아웨 신앙

1. 바벨론 창세기 : 우주의 기원

“하늘이 아직 명명되지 않았을 때에 아래에 있는 견고한 땅이 아직 생각되지 않았을 때에, 오로지 근원적인 Apsu, 창조자(begetter)와 Mummu(Mummu)와 티아맛(Ti'amat)가— 그녀는 이들 모두를 태어나게 함—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아직 습지(bog)도 형성되지 않고, 어느 섬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어느 신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우주의 시작은 물의 혼란으로 기록됨.

이 혼란은 세 개로 서로 섞여 있음 : Apsu 단물(sweet waters)을 상징,

Ti'amat : 바다를 상징, Mummu : 구름과 안개로 상징 됨.

이들로부터 두 신이 탄생함 : Lahmu와 Lahamu. 이들은 Apsu에 의해서 잉태되고 Tiamat에 의해서 태어난 신들. Lahmu와 Lahamu로부터 두 신이 태어남 : Anshar 와 Kishar. 이들로부터 Anu가 태어남. 이는 하늘의 신. Anu는 Nudimmut(땅)를 낳음. Ea의 다른 이름으로서, 단물의 신. Ea는 고대에서는 땅을 상징함. Anu는 Ea를 자기 자신처럼 만듦. 땅은 둥근 접시처럼 생겼다고 믿음.

이 가운데서 Nudimmut가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남. 혼란으로부터 신들이 태어나자, 새로운 원칙이 태어남. 바로 운동의 원칙. 이제 운동이 시작 됨. 혼돈과 갈등이 시작 됨. 이 때, 이를 거부한 신이 Apsu임. Apsu는 새로운 방식을 거부함. 티아맛에게 가서 말함. “나는 이들 때문에 쉬지못하겠고, 잠도 못자겠다. 나는 죽겠다.” 이로써 신들간에 갈등이 시작 됨.

이 때 현명한 Ea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에아가 전능하고

신성한 마술로, 주문을 외워 물위(Apsu)에 던짐. Apsu가 순종하고 깊은



잠에 빠짐. 이 때 Ea가 그로부터 왕관을 취해서, Apsu의 겉옷으로 자신을 걸침. Apsu를 죽이고, Mummu를 가둠. Apsu는 죽음의 잠에 빠짐. 여기서 마술은 말을 뜻함. 혼돈이 말로서 정리됨. 그리고 여러 신이 아니라 한 신에 의해서 이루어짐.

Ea로부터 Marduk이 태어남. 신화의 영웅. 에아는 아버지요, 그를 크게 기뻐함. 눈이 네 개. 귀가 네 개. 마르둑이 자라면서, 다시 혼돈의 세력이 위협함. 티아맛이 두 번째 남편인 킵구에게 권세를 줌. 에아가 이를 듣고서 아버지 Anshar에게 찾아감. 티아맛의 계획을 들음.

이 때 Anshar는 마르둑이 이 전쟁을 말도록 에아에게 권한. “마르둑아, 티아맛을 죽여라.”

왕들이 마르둑을 왕으로 삼음. 마르둑의 무기는 천둥의 신과 번개의 신, 무지개와 네 바람으로 만든 그물. 그러나 킵구와 부하들은 절망하였지만 티아맛만 대적하려고 함. 마르둑이 그물로 티아맛을 덮치자, 티아맛이 입을 벌려 마르둑을 삼키려 함. 그러나 바람을 불어서 입을 닫지 못하게 함. 바람이 몸 전체를 부풀림. 이 때 마르둑이 활을 쏘. 심장을 찔러 죽임. 티아맛의 몸을 둘로 잘라서, 하나는 하늘을, 몸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물쇠로 잠그고 보초를 세움. 나머지는 땅을 만듦. 그 다음으로 마르둑은 내적인 조직을 만듦. 먼저 달력을 만듦. 하늘에는 별들을 만들어서, 년, 월, 일을 정하도록 함. 하늘 안에는 달을 만들어 비취도록 함. 성경 (Enuma Elish)

2. 기독교 신앙과 바벨론 신앙과의 비교

1) 신관 비교

기독교 :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벨론 : 신들과 피조물이 크게 다르지 않음.

신들도 서로 싸우고, 힘 있는 신이 이기고,
신들도 사람처럼 자식을 낳고...

2) 구원관 비교

기독교 :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 말씀으로 혼란이 물러감.

바벨론 : 신들과의 싸움에 동참하는 것. 주술로 혼란이 물러감.

이것도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힘이 됨.

마르дук이 대표.

3) 세계관 비교

기독교 :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으며 심히 사랑하시는 대상

바벨론 : 우주는 참으로 혼란스러움. 언제든지 힘센 신이

나오면 이길 수 있음.

4) 인간관 비교

기독교 :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

바벨론 : 신을 섬기는 천한 피조물.

III. 바알과의 갈등

1. 바알 > B'l

1) 소유한다(to own), 다스린다(be lord, to rule)의 뜻.

왕이나 신을 상징하기도 함.

2) 페니키아의 바알은 헬라의 제우스신과 같은 지위.

* 이집트에서는 하단(hadad)이라고도 불리워짐.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닷이 있음.(대상 1:30)

3) 사사기에는 바알과 아세롯, 아스다롯과 함께 씌여짐.

바알브릿(삿 8:33)은 계약의 바알이란 뜻.

이는 세겜의 신.

4)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들었을 때 바알스불에게 묻게 함.

이는 에크론의 신. 9:27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이세벨은 옛바알(Ethba'al)의 딸로서,
시돈의 왕의 딸. 두로의 최고로 조직된 바알 신앙이 사마리아에
소개됨. 여기서 아합이 신전을 지음. 유대로 번짐.

5) 전쟁의 신 바알:

젊은 전사. 엘, 모(아셀의 아들들)과 싸우는 것으로 나타남.

바알은 훗날 우가릿 pantheon의 주인이 됨. 아직 젊었지만,

야망은 전쟁에서의 승리.

하늘에서 무한한 통치를 얻은 뒤에 땅을 점령하려 함.

못(Mot)과 싸움. 이 바알은 결코 El에게 복종하지 않음.

모든 신들을 다 정복함.

바알은 아주 감정적인 신. 마치 청소년의 감정과 같음.

두 여신만이 그를 이성적으로 돌릴 수 있음.

이들은 어머니와 같았으며, 특히 바알의 여동생 아낏은

큰 역할을 함. 여인들의 자기의 최고의 중들이었고,

힘은 있지만, 지혜는 없음. 젊은 바알은 성적으로 아주 강력함.

갈멜산은 거룩한 지역이 됨. 사사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 함께 씌여짐. 기드온이 죽자, 이들이 바알과 바알 브룻(계약의 바알이란 뜻)을 섬김. 바알 브룻은 세겜의 신으로서,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심.

2.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갈등

1) 정치적인 라이벌

먼저 바알 하닷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신인 엘을 몰아냄. 바알신은 두로의 통치 상징. 페니키아(Phoenician) 여인 에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고, 앗달리아가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자, 페니키아의 바알이 이스라엘에 들어옴.

엘리아 때에 심각해짐.

2) 기능적인 라이벌

바알은 비의 신이며, 이는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베니게의 바알 신앙이 소개될 때가 가장 강대함.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 소개되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제의로 소개되었고(a national cult), 갈멜산에 산당들을 지음.

갈멜 산에 정착하게 되고, 이들이 비를 내리는 전문가로 인식됨.
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 누가 더 강한 신인가
를 질문함.

그 결정 기준 : “누가 비를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결코 농사나 풍성함의 신은 아니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선포함.

그러나 이 때에 엘리야가 바알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임.

누가 비를 내렸는가?

호세아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기록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김.

점점 백성들의 배교가 심해짐. 예언자들이 더 화를 냄.

그리고 바알 의식인 성적인 의식이 죄악성을 드러내고 (hierogamy).

3. 바알과 연관된 사실들

1) 다곤 : 곡식의 신 grain.

(삿 16 : 23), (삼상 5 : 2 - 7), (대상 10 : 10)

‘다곤’은 중부 유프라테 강 지역의 가장 중요한 신.
페니키아의 역사에 따르면, 다곤은 엘 크로노스(EL-Kronos)의 형제.
여기에서 바알 하닷이 태어남.

바다 백성들(Sea people)이 기원전 12세기에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함. 이들은 다곤을 데리고 들어옴.
그리고 자기나라 신으로 삼음. 삼손과 블레셋 싸움은 바로 이 싸움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산당에 둠.

‘바알’은 다곤의 아들
여신 아낏 Anat은 바알의 여동생.
앗시리아의 왕 Samsi Adad은 열렬한 다곤 신봉자.
농경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신. 이 신은 또한 전쟁의 성공을 보장함.
바알의 아버지.

2) 아닷 : 바벨론의 중요한 신으로서 아누의 아들.
앗수르 왕국의 처음부터 아닷은 중요한 신.
12세기에는 신들 중에 가장 널리 퍼진 신이 됨.
아주 잔인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신.

3) 아낏 : 누구도 아낏처럼 바알을 기꺼이 섬기지 못함.
아낏은 바알의 적들을 다 부숴. 아낏은 바알의 여동생으로 불리움.
이 둘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성적인 관계는 가짐.
바알이 죽었을 때 마치 어머니처럼 슬퍼함. 전쟁의 여신이요,
바알의 위로자.

4) 아세라 : 아세라도 바알을 섬김.

아세라의 70명의 아들들은 바알의 신전 축하에 참여함.

바알이 힘은 강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성숙이 없음.

5) 이세벨(시돈의 왕의 딸) :

두로의 바알을 사마리아에 소개하고, 아합이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450명의 선지자를 고용함.

6) 가나안에 들어오자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에 적응해야 함.

이들이 새로운 농경을 배우면서 동시에 바알을 받아들임.

하나님은 농사를 모르는 신. 부담없이 받아들임.

7) 베니게 바알 : 가나안의 지방 신인 바알 못지 않게 큰 대적은 극도로 조직화된 베니게의 바알.

기원전 9세기에 두로는 강국이 됨. 거대한 베니게 제국의 수도가 됨.

이 때 나라의 신 하닷이 전국에 퍼짐. 따라서 이 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 것. 북 왕국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임. 즉, 베니게의 공주와 아합의 결혼.

남 왕국은 오므리의 딸 앳달리아를 통해 이루어짐.

앳달리아가 왕의 자리를 가지자 바알이 강성해짐.

바알 신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짐.

8) 바알과의 심각한 갈등은 엘리야 시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야훼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임. 야후의 반역으로 아합을 죽이고,
사마리아의 제단과 선지자들을 죽임.

야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인 후, 아하시야의 어머니 앳달리아
는 유다의 권좌를 잡았고, 다윗의 계보를 파괴함.
이에 대해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역함.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의 계약을 맺었고,
예루살렘의 바알 성전은 파괴됨.

9) 선지자의 탄원

- a. 이사야 : 제사의 부패 (행함없는 제사)
- b. 아모스 : 사회 정의의 부패 (빈익빈 부익부)
- c. 예레미야 : 우상 숭배

4. 바알 신앙의 현대적 의미

- 1) 물질적, 쾌락적, 비도덕적, 이기적.
- 2) 인간의 육신적 욕망들을 대표함.
- 3) 엄청난 세력을 가짐.
프로이드의 성혁명, 마스의 유물론 혁명,
계몽주의의 이기주의 혁명
- 4) 종교적 혼합주의 : 하나님의 신앙과 함께 섞임.



- 5) 선교의 열정이 굉장히 강함 :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화 하려고 각오.
선교사가 물질을 사용하면서 제국주의화 됨.
- 6)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나 축복 위주로 바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대로 바꿈.
- 7) 이웃은 점점 도구가 됨. (I and Thou에서 I and It로!)

5. 타종교를 대하는 바른 자세

원칙있는 개방적 자세(a principled openness)

- 1) 자신의 정체에 대한 확고한 고백
- 2) 타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
- 3) 종교와 생명을 구분하는 분별력
- 4) 생명 사랑의 자세

